

식료품 ‘그냥 드림’...생활위기 가구 “보름은 버티겠어요”

복지부·전남도 ‘그냥 드림’ 시범사업 시행 광역 푸드마켓 1호점 가보니

소득 심사 없이 지원...1인당 2만원 상당 3~5개 꾸러미 제공
전남 7곳서 이달 400여명 혜택...상담 통해 제도권 복지 연계

“혼자 살고 있어서 한 끼 챙겨먹기도 힘든데, 전남도 덕분에 보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얻었네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한정된 게 아니라서 용기내서 와 봤어요.”

지난 15일 오후 2시에 무안군 삼향읍 햇살나눔푸드마켓 1호점. ‘그냥 드림’ 운영 시간이 다가오자 마켓 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다. 꾸러미를 들고 나오는 이들의 손에는 햇반과 라면, 김, 통조림 등 2만 원 상당의 식품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이날 마켓을 찾은 김태균(43)씨는 “자신이 알려줘서 반신반의하며 왔는데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그냥 드림’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냥 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활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민을 신속히 돕기 위한 사업이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심사나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해당 사업장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마켓에서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서를 적는 손길이 분주했다. 이름과 나이, 주소, 연락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단히 적는 것이 전부였다. 소득 증빙도, 복잡한 자격 확인도 없었다. 다 작성한

신청서를 건네자 곧바로 꾸러미가 손에 쥐어졌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최상식(77)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혼자 끼니를 챙겨야 했는데 큰딸의 권유로 마켓을 알게 돼 찾아 왔다”며 “물품 꾸러미를 보니 일주일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웃어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이모(32)씨는 “최근 대출 이자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생활비를 절약하던 중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식비가 절감될 것 같다”며 “2월에 다시 방문해 상담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냥 드림 사업은 현재 무안·여수 광역푸드마켓, 영광 기초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 기초푸드뱅크 등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달에만 400여 명이 물품 지원을 받았다.

사업장 1곳 당 하루 최대 50개까지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요가 몰릴 경우 광역 단위 마켓에서 물량을 조정하거나 기부금으로 즉시 보충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첫 방문에서는 별다른 조건이나 증빙서류 없이 식품을 지원하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는 상담이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제도권 복지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남도 관계자 설명이다.

상담 결과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식 우려가 큰 경우에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정기 이용으로 연결된다. 정신건강 문제나 다른 복합적 어려움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2196개의 물품이 전달됐고 13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1건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판정돼 지원 연계가 이뤄졌다. 나머지 사례들 역시 읍·면·동에서 차상위나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는 기존 푸드마켓·푸드뱅크 제도를 보완해 거주불명등록자, 신용불량자, 범죄 피해자 등 제도권 복지에서 소외되기 쉬운 식생활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 과정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불리 판단해서 물품 제공을 막아버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은 무조건 제한 없이 열어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 제도가 아니라 식생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금·현물 기부 유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그냥 드림 사업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5곳 추가해 총 12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



지난 15일 무안군 삼향읍 광역푸드마켓 1호점을 찾은 한 주민이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그냥드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냥 드림’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된 무안군 삼향읍 햇살나눔 푸드마켓 1호점.

아침 영하 10도...광주·전남 ‘최강 한파’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 ‘뚝’

이번 주 광주·전남 지역에 아침최저기온 영하10도까지 떨어지는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20일 광주·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다고 18일 예보했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0~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를 보일겠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8~영하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1~5도가 예상된다.

또 21일에는 아침최저기온은 영하9~영하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2~1도에 머무르며, 22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0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1~5도에 머물러 ‘극한 추위’가 이어지겠다.

전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제외)·진

도·거문도·초도 등 전남 16개 지역에 강풍예비특보를 내렸다.

19일 오후부터 광주와 전남내륙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특히 전남 해안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이번주 중 눈이 내리는 날도 있겠다. 19일은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눈은 21일과 22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노로바이러스 극성 ‘5년내 최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올해 1월 2주(2026년 2주) 기준 548명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11월 1주(2025년 45주) 70명에서 12월 1주 142명, 올해 1월 1주 354명 등으로 급증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3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7~18세 24.8%, 19~49세 17.7%, 65세 이상 12.2% 순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감염 시 12~48시간 이내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국내외 단체관광객 잡아라

전남도 ‘단체관광객 유치 협력여행사’ 35곳 모집

전남도가 단체관광객들의 발길을 전남으로 이끌 협력여행사를 모집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내 관광수요 회복과 방한 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라 ‘단체관광객 전남 유치 협력여행사’ 35개사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는 내국인 유치 협력여행사(15개사)와 외국인 유치 협력여행사(20개 사) 등 35개사를 선정하고 이들 중 10개 사의 경우 전남지역 여행사를 필수로 포함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 마케팅 강화 측면에서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협력여행사는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전남도는 필요한 운영비와 모집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내국인 유치 협력여행사(15개 사)에는 단체관광객(15인 이상) 모집 단위별로 차량임차비(35만원)과 유료체험비, 관광지 입장료(모집 1인당 최대 2만 5000원)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외국인 유치 협력여행사(20개 사)에는 가이드비, 유료체험비, KTX 교통비, 모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최대 500만원의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협력여행사를 통해 올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항지원금 제공 ▲여수세계섬박람회 관광객 유치 특별인센티브 지원 ▲‘섬반값여행’ 상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여행사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2월 6일 발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치정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정신분석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비고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5.(월) ~ 19.(월)

·전형일: 2026. 1. 22.(목) 오후 2시

원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